

재생E활용 컨설팅 필요성 ①정부 에너지 정책과 연계한 기업 역량 강화

- 정부는 반도체 · 피지컬 AI · AI 데이터센터 중심의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
- (청정 전력 공급기반 확충) 재생에너지 100GW 조기 달성, 에너지고속도로 · 분산전력망 구축

2030 NDC 책임있는 이행으로 탈탄소 문명 도약 토대 마련

재생E 100GW 보급 본격화

재생E 생산 확대

| 이격거리 |

| 新부지발굴 |

기존 지체별 별도 기준

변경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
(재생E법)

농지

학교

주차장

공정지붕

선도모델 확산, 재생E 산업 육성



햇빛소득마을 조성

전국 38,000개 리(里)

*전기관함여 42개

88개

공공기관 RE100

재생E 시대 에너지 고속도로

차세대 전력망

지산지소

지역 내 생산-소비 분산망

지능화

유연화

AI센터 등 지역이전 유도

ESS, 양수발전, VPP

에너지 대전환 토대 정립

탈탄소 에너지 전환 로드맵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2040 석탄발전전환로드맵

재생E 계통 확보, 융통선로 구축



기존망 활용



HVDC 개발



주민소통 강화

재생E 중심 요금·시장·산업 개편



계시·지역별

요금개편

| 재생E 준중량제도 |

경부하기 추가정산금 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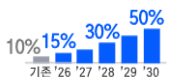
(급전지시 이행 조건)

NDC 이행을 산업·경제 대도약의 기회로

탈탄소 산업 전환 적극 지원

| 유상할당(발전부문) |

| 탈탄소 산업-기업 육성 |



10대 GX 기술 유니콘 녹색 금융

수송·건물부문 탈탄소화

| 전기차 구매 지원 |

*내연차 전환 지원금 포함
300만원 400만원

| 열에너지 탈탄소화 |

열에너지 혁신 로드맵
공기열 재생E 인정
히트펌프 전용 전기요금

중량·지방·국민 함께하는 기후행동

| 탄소중립포인트 확대 |

나무심기
배란다 태양광 설치
국민 '기후행동' 실천

중앙 국가기후위기대응책

지방 환경청-지방정부 협력

3대 메가프로젝트 주요 내용

1 반도체

수도권 반도체 생산 거점 조기 완성으로
5년 내 메모리(D램) 생산 능력 2배 확대

경기 평택(삼성) 생산라인 5, 6호기
순차 건설 → 동시 건설로 기존 대비
3~4년 단축

경기 용인 최종 탭 완공 시점을
국가산단 7년(삼성),
일반산단 12년(SK하이닉스) 단축

반도체 성장 거점 전격 확장

2 피지컬 AI

제조업 AI 전환 가속화

로봇, AI, 수요제조업 등 연관 분야
중심으로 업종별 특화 AI 로봇 개발,
매년 1,000대 이상 현장 보급 예정

지역 중심 양산 체계 구축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

3 AI 데이터센터

권역별 GW급 AIDC 구축

1단계: 8.4GW(SK, GS, 네이버
약 550조원 투자)
2028년 상반기 내 착공,
2029년부터 단계적 운영

2단계: 10GW
SK가 1단계로 추진한
AIDC(5GW)를 2035년까지
15GW로 확장



기후에너지환경부(2025.12.17.)

연말뉴스 자료: 산업통상부

원형민 기자 20260629

재생E활용 컨설팅 필요성 ②재생E 사용 시 온실가스 감축실적으로 인정

- 국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의무 증대
 - '35년 배출량 목표는 '18년 대비 53%~61% 감축으로 확정
- 전기·열 생산, 제조, 건설, 수송 등에서 사용되는 에너지는 국가전체 온실가스배출량의 77% 차지

국가 탄소중립 · 녹색성장 기본계획

국가비전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여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고,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

국가전략

구체적·효율적 방식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책임감 있는 탄소중립

민간이 이끌어가는
혁신적인 탄소중립·녹색성장

모든 사회구성원의 공감과 협력을 통해
함께하는 탄소중립

기후위기 적응과 국제사회를 주도하는
능동적인 탄소중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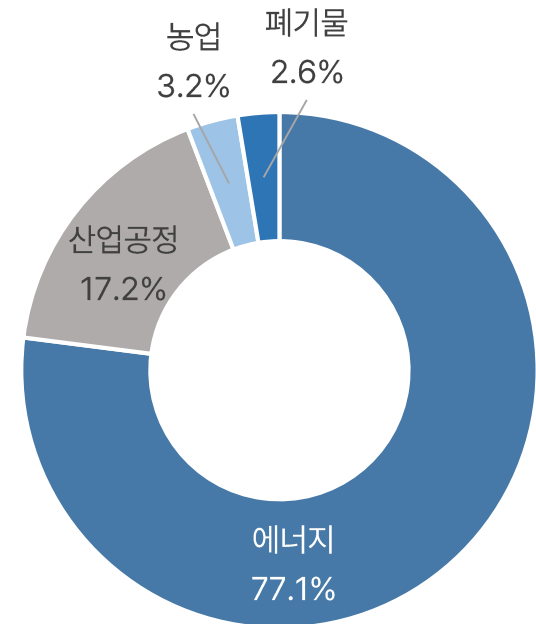
중장기
감축목표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 달성

2018 727.6백만톤 ➡ 2030 436.6백만톤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계획 (2023. 4. 12.)

2023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비중



2025년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 (2026. 5. 29.)

재생E활용 컨설팅 필요성 ③글로벌 공급망 리스크·수출규제 대응

-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제도 추진, RE100 확대 및 규범화로 기업에 대한 재생E 사용 요구 증대
 - 탄소국경조정제도('26년 시행), 유럽의 공급망실사법('24년 시행)에 따라 에너지 탈탄소화 요구도 높아져
 - 지속가능성 공시 흐름 강화 → 공급망 기업들도 온실가스배출량 정보를 관리하고 감축해야

RE100 참여 확대

- RE100은 2014년 Climate Group과 CDP가 공동으로 시작한 글로벌 민간 캠페인으로 주요 대기업을 중심으로 가입 확산
- 탄소중립 확산에 따른 새로운 국제 규범화
- 국내 기업 참여도 26년 4월 36개사



글로벌 규제·기후정보공시흐름 강화

- 탄소국경조정제도 '26년 본격시행 (적용대상: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기, 수소)
- 독일 공급망 실사법은 '23년 시행. EU 공급망 실사법은 '24년 발효. '28년 국내법 전환 예정
- 시행기업의 직접배출량이 아닌 공급망기업의 배출량(scope3)까지 관리토록 하는 법, 제도 신설
- 미 캘리포니아주 온실가스배출량 공시 의무화법 ('26년 시행. '27년부터 scope3), 유럽의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에 따라 일정 기준 이상 기업은 scope3 배출량을 공시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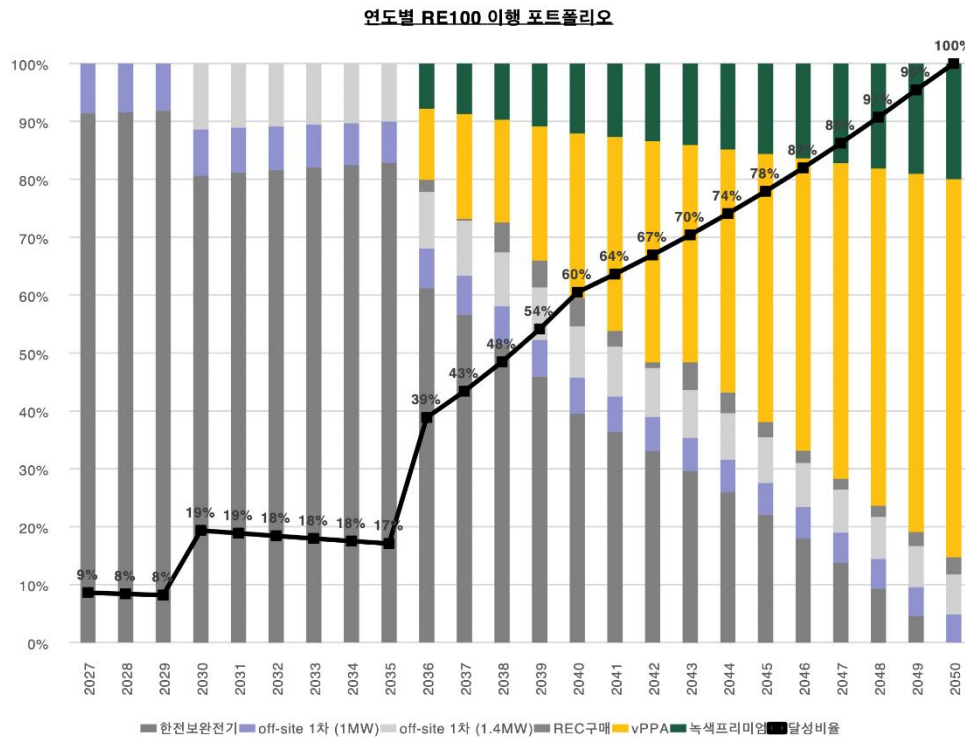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제도 추진

-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7.8일 당정협의회 개최, '지속가능성(ESG) 공시 제도화 방안(최종안)」 발표
- (시기·대상) '28년(FY27)부터 연결자산총액 3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부터 의무화
- (채널) 거래소 의무공시로 시작하되, 일정기간 경과 후 법정공시 전환
- (Scope3) 공급망 배출량을 공시하는 Scope3 공시는 공시대상별로 3년 유예
- (공시기준) 한국형 공시기준(KSSB) 제정, 기후공시부터 의무화

재생E활용 컨설팅으로 얻을 수 있는 결과

- 기업의 전력사용량과 재생에너지 조달 여건을 분석하여 연도별 RE100 이행 포트폴리오 설계
→ 조달 수단별 비용과 탄소 비용을 함께 비교하여 장기적인 비용 부담 최소화

연도별 RE100 이행 포트폴리오 예시



20년간 누적 손익 비교 그래프 예시

